

요동지역 초기 청동기문화의 형성과 한반도 무문토기의 기원

김재운 (부경대학교)

토론 : 배진성(부산대학교)

요동 초기 청동기문화의 형성과 한반도 무문토기의 기원

김 재 윤*

<목 차>

I. 머리말

II. 요동과 압록강 유역의 신석기 후기와 초기 청동기 문화

1. 요동지역
2. 압록강 유역

III. 병행관계 및 형성과정

1. 병행관계
2. 지역 간의 네트워크
3. 청동기시대 형성과정

IV. 맺음말

I. 머리말

요동은 북방문화가 퍼진 길목의 하나로 대륙과 한반도의 병행관계를 성립시킬 수 있는 곳이고 한반도 무문토기의 기원지 중의 하나로 중요한 고고학 연구영역이다.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된 것은 1990년대 들어서 한반도 남부에서 이른 시기의 무문토기들이 등장하면서 부터이다(안재호 2000). 최근에는 이러한 연구들이 더욱 세분화 되어서 요녕의 여러 문화 들을 고찰(古澤義久 2007, 中村大介 2009, 천선행 2010)되면서 기원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다.

한반도 청동기시대의 무문토기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었다고 논의되고 있으며, 그 지역마다 청동기시대 시작 양상이 다르다.

무문토기 출토지 가운데서 한반도내에서 가장 이른 단계의 하나로 판단되는 압록강 유역은 요동지역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요동지방의 청동기시대형성과정 및 그것이 압록강 유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

* 부산대학교 시간강사

치는지 알아보고 한반도 내에서도 ‘요동’과 그것이 서북부 청동기시대의 형성
 動因 및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자 한다.

결국 이러한 점들이 해결된다면, 무문토기의 형성과정과 기원을 파악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II. 요동과 압록강 유역의 신석기 후기와 청동기 초기 문화

遼東은 지리적 개념으로는 遼下의 동쪽지역을 일컫는데, 요하 중에서도 요
 하중하류역과 요하 동부지역이 해당된다. 요하중하류역은 渾河, 太子河, 遼下
 中下流域을 통틀어 일컫는데 千山山脈의 以西지역이다. 요하 동부지역은 북
 쪽의 서봉-청원-환인 일대부터 남쪽의 요동반도 남단의 老鐵山까지 인데, 요
 하하류와 압록강하류를 연결시킨 선을 기준으로 요동남부와 요동북부로 나눌
 수 있다(Hua Yu Bin 2009).

압록강 유역은 압록강 하류와 압록강 중하류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그 중
 압록강 중하류는 이 강의 지류인 渾江까지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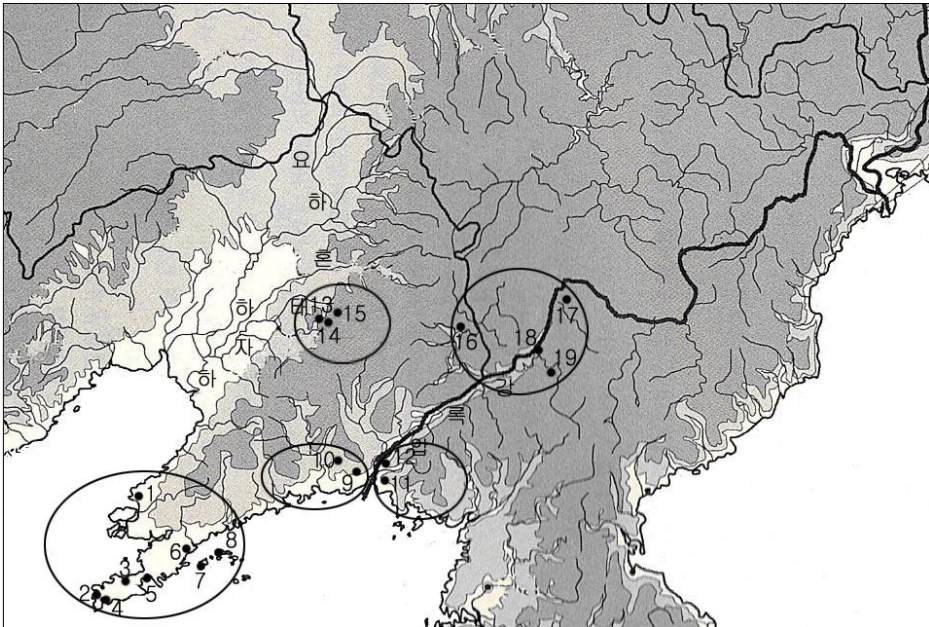


그림 1. 관련유적 (1: 삼당촌, 2: 광가촌, 3: 문가둔, 4: 상마석, 5: 대취자, 6: 단타
 자, 7: 소주산, 8: 상마석, 9: 석불산, 10: 북구, 11:쌍학리, 12: 신암리, 13: 장가보,
 14: 묘후산, 15: 마성자, 16: 오녀산성, 17: 토성리, 18: 심귀리, 19: 궁귀리)

1. 요동지역

1) 요동남부

요동남부의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 편년은 요동과 한반도의 병행관계 기본 자료로서 주목받아왔다. 특히 신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로는 소주산상층 문화-쌍타자 1문화로 이어지면서 발전한다.

요동반도 남단의 신석기시대 연구는 요동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활발하다. 기본적인 선사시대 편년은 長海縣廣鹿島와 大長山島의 유적을 조사 후, 小珠山下層→小珠山中層→小珠山上層→於家村下層으로 변한다는 결론을 수립하게 되었다(許玉林·許明綱·高美璇 1982). 그 후 이러한 기본적인 틀에 郭家村유적이 조사되면서 편년안은 더욱 세분화되었다. 이러한 작업들은 주로 신석기 중~후기에 걸쳐서 이루어졌다(표 1).

특히 광가촌 유적에서 출토된 호형의 너문(그림 2-20)가 남경 유적에서 확인되면서 관심이 집중되었으며, 이 토기는 요동반도와 한반도의 서북지방과의 병행관계를 세우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許玉林 1994).

소주산중층=광가촌4층, 오가촌과 유사	小川靜夫 1982
소주산중층과 오가촌기를 분리	宮本一夫 1985
오가촌→광가촌3층	宮本一夫 1990
광가촌5층→광가촌하층 광가촌4·3층→광가촌중층	千葉基次 1990
광가촌5층→광가촌4층→광가촌3층	孫祖初 1991
소주산중층=광가촌 5층과 4층을 오가촌과 병행, 광가촌 3층과 분리	趙輝 1995
광가촌5→오가촌기→광가촌4→광가촌 3기 双砬子1→광가촌상층→双砬子 2기	金英熙 2002 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歷史研究所 1969

표 1 . 요동반도의 선사시대 편년 연구

소주산상층문화의 토기는 이중구연토기인 侈口筒形罐, 斂口厚疊脣罐, 흑색의 小口鼓腹罐, 삼족기로써 다리가 環모양으로 생긴 盆形鼎이 있다. 이 삼족기는 소주산 중·하층 문화에는 없었던 것으로, 이 단계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그 외, 고배, 완, 삼족배 등이 확인된다(그림2-10~28). 이들 토기에는 삼각문, 망문, 인자문, 평행사선문, 현문 등이 침선방법으로 시문된다. 이 단계의 절대연대는 4900~3990B.P.에 해당한다(郭大順·張星德 2008).

요동반도의 소주산상층에서 후속된 청동기시대 전기는 쌍타자1기문화로 대표된다. 유적은 층위에 따라서 3기(하층-1기, 중층-2기, 상층-3기)로 나누어진다. 발굴 당시(1964년)에는 신석기시대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지만, 대취자 유적에서 쌍타자 유적과 동일한 3층의 퇴적을 조사하고, 이 유적이 청

동기 문화에 속한다는 것을 알았다(郭大順·張星德 2008)

쌍타자1기문화의 토기는 협사갈도, 마연토기, 무문토기가 주를 이룬다. 토기는 대부분 무문양이 많지만, 문양이 있는 토기에는 현문(弦文), 유정문(乳釘文), 침선문 등이 시문되었다. 토기는 발형토기 이외에 호형토기, 고배, 손잡이가 달린 토기 등이 있다(그림 2-29~40). 이 문화의 절대연대는 2275~1680B.C.이다.

2) 요동북부

요동북부는 신석기시대 후기로 石佛山유형(許玉林 1990) 혹은 석불산古期(古澤義久 2007)이다. 전자는 석불산 유적에서 신석기시대 문화층을 중심으로 한 것이고, 후자는 석불산 유적의 유물 중에서 무문토기는 따로 분리해서 유적을 古·中·新으로 나눈 것이다.

실제로 이 지역에서는 현재까지 청동기시대 유적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석불산 유적을 나누어서 그 공백을 대치하는 것에 동의한다. 요동산지의 북부에서부터 혼강 유역 일대의 유적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한 조사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점(許玉林·金石柱 1986)을 보아서도 앞으로의 새로운 유적조사를 기대해 볼 수 있다.

石佛山古期는 뇌문토기가 가장 특징적이고, 그 외 삼각침선문 등이 침선문으로 시문되어져 있고, 이중구연토기도 확인된다. 토기의 기형은 구연부가 외반하는 호형토기가 대부분인데, 그 중 정부가 길게 올라가고 동최대경에 파수가 부착된 토기도 있다(그림 3-1~27). 그 외에 고배와 삼환족기(그림 3-11)도 북구서산(北溝西山)유적에서 확인되는데, 소주산상층의 유물과 비교할 수 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지역과 한반도 내의 압록강 하류역은 뇌문토기, 이중구연토기라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삼족기의 존재는 한반도 내에서 확인되지 않는 점이 압록강 유역을 기준으로 해서 좌안과 우안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었다. 석불산古期の 절대연대는 西山유적의 연대를 참고로 한다면 $4650\pm 100\sim 4210\pm 100$ B.P.이다.

이에 후속하는 청동기시대 토기는 무문의 호형토기, 고배등으로 석불산中期로 구분할 수 있고(그림 3-28~35), 마성자 1기와 병행하는 시기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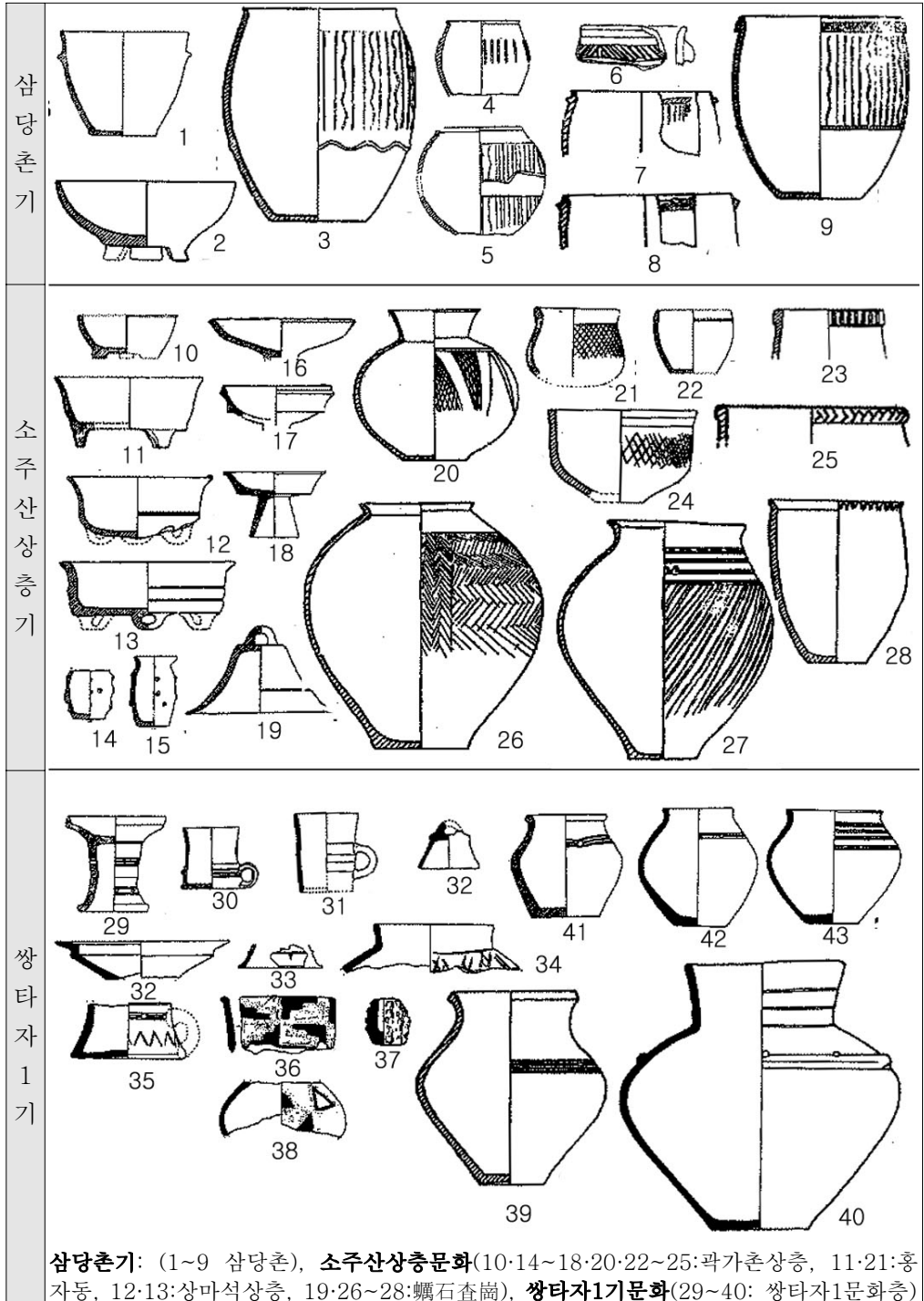


그림 2. 요동남부의 신석기시대 후기~ 초기 청동기시대 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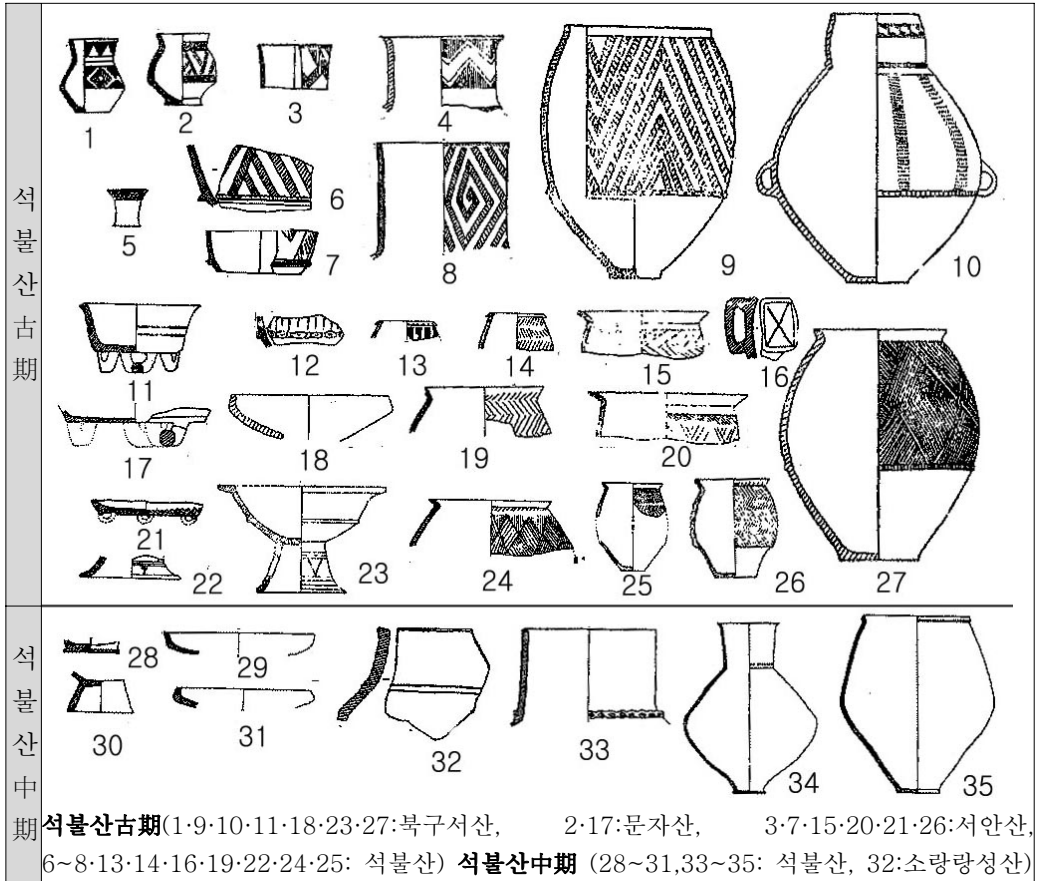


그림 3. 요동북부의 신석기 후기~초기 청동기시대의 토기

3) 요하중하류

요하중하류의 신석기시대 후기와 청동기시대 고고학문화는 태자강 하류의 馬城子 유적을 표지유적으로 해서 각각 마성자하층문화와 마성자문화로 설정되었다(李恭篤 1989·1992,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本溪市博物館 1994).

신석기시대 후기는 이 지역 신석기시대 전기인 후와상층문화에 후속하는 것으로 마성자하층1~4기로 설정되고, 마성자하층1기는 소주산중층기, 후와상층기와 병행, 마성자하층4기는 소주산상층기와 병행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古澤義久 2007).

이들 문화의 내용을 토기로 살펴보면, 마성자하층3기는 침선문이 시문된 이중구연토기와 돌대문토기로 대표된다(그림 4-1~8). 정확하게 기형이 알려진 유물은 없지만 마성자 하층1~2기 유물이 발형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 단계

의 토기도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대체적으로 발형일 것으로 생각된다. 마성자하층4기는 이중구연토기가 확인되지 않고 침선이 새겨진 호형토기와 파수부토기가 특징인데, 이 지역은 이 단계부터 호형토기가 출현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그림 4-9~13).

청동기시대 시작을 알리는 마성자1기문화는 돌대 혹은 파수가 부착된 호형토기가 특징이다. 돌대는 구연부에서 일정하게 내려온 부분 혹은 동체부에 부착되고 무문양이 대부분인데, 침선이 시문된 토기도 잔존한다(그림 4-14~23). 마성자2기문화는 무문의 돌대문토기 혹은 이중구연토기가 기본이다(그림 4-24~30). 새롭게 경부가 길어지고, 동최대경에 세로로 된 파수가 붙은 토기가 출토되고 있다.

2. 한반도 압록강 유역

1) 압록강하류역

압록강하류역은 신암리 유적, 쌍학리 유적 등이 신석기 후기와 청동기시대 형성에 관련되었다. 이 지역은 특히 요동반도와 한반도를 잇는 지역이어서, 이곳의 편년을 통해서 한반도 북부와 요녕지방의 병행관계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신암리 유적은 모두 4지점이 발굴되었는데 그 중에서 청등읍, 제3지점 제1문화층, 제4지점 1문화층의 유물이 주로 신석기시대의 것이어서 신암리I기로 분류되었다. 신암리I기에 비해서 기형에서는 변화가 없지만 무문토기가 주를 이루는 것이 특징인 제3지점2문화층이 신암리II기, 미송리형토기가 주를 이루는 신암리III기로 분류되었다(後藤直 1971).

청등읍의 유물은 주로 호형으로 뇌문이 시문되고, 단추 같은 원판이 부착되거나 경부에 돌대가 시문되고, 동최대경에는 세로로 파수가 부착되는 특징이다. 이러한 호형토기는 경부와 동체부가 각을 급격하게 이루고 있다. 또한 무문토기와 침선문토기도 확인된다. 침선문토기는 동체부에서 경부가 완만하게 이루는 것이 뇌문의 호형토기와는 차이가 있다. 그 외에 고배도 확인된다. 신암리 3지점1문화층의 토기는 침선문토기와 일부 뇌문토기가 남아 있는데, 기형은 확실하지 않다. 신암리3지점2문화층은 무문토기가 대부분이고 일부 침선과 점열문이 시문된 토기도 남아 있다. 호형토기와 고배가 주를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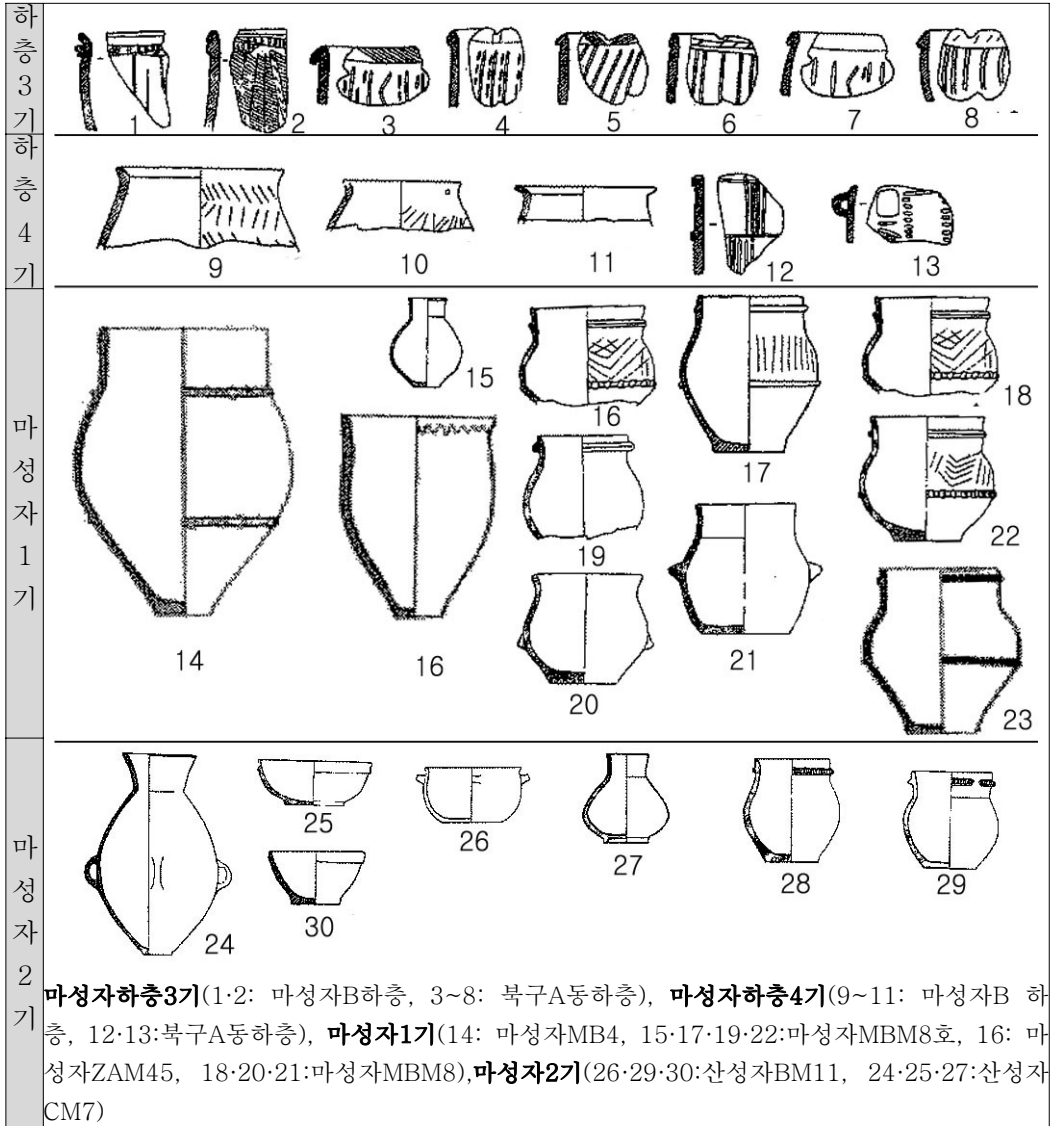


그림 4. 요하중하류역의 신석기시대 후기~초기 청동기시대 토기

(그림 5).

여러 지점의 토기를 특징별로 분류한 편년안은 최근에는 신암리 I기를 중심으로 다른 의견들이 있다. 신암리I기 뇌문토기와는 달리, 침선과 점열문이 복합되는 토기(그림 5-26)를 분리하였다. 전자는 신암리I古 후자는 신암리I新으로 나누고, 이 토기가 신암리II기의 점열침선문토기 호가 확인되는데 주목해서 신암리 I기古→신암리제3지점1문화층→신암리I기新·신암리II기→신암리III기로 변화한다고 보기도 한다(千羨幸 2005). 그러나 신암리제3지점1문화층과

병행하는 쌍타자I기에도 이와 같은 침선이 시문된 경부가 완만하게 외반된 호(그림 2-41~43)는 출토되고 있다. 또한 압록강상류의 오녀산성 48호 주거지에서도 경부에 뇌문이 시문된 호와 침선문토기가 공반되고 있다(그림 6-11~22). 그렇기 때문에 청등읍의 유물조합을 분리할 필요는 없는 것(古澤義久 2007)으로 생각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암리I기는 여러 지점의 신석기시대 유물을 통틀어 명명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신석기시대 유물 보다 신암리 II기의 청동기시대 기를 분리하는데 더 초점을 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청등읍 유물과 신암리3지점1문화층은 토기 특징에서 뇌문토기의 중심에서 이중구연토기와 무문고배로의 변화가 보인다(그림 5). 따라서 신암리 유적의 지점에 따라서 청등읍기→신암리제 3지점1문화층→신암리3지점2문화층으로 편년해서 요동지방과의 병행관계를 구하는 것(古澤義久 2007)이 옳다고 생각된다.

요동남부와의 병행관계는 청등읍에서 출토된 채색토기가 출토되기 때문에 청등읍 단계가 쌍타자 1기보다는 약간 이른다(사회과학원고고연구소·역사연구소 1969, 小川靜夫 1982, 古澤義久 2007).

한편, 청등읍기 이전단계로는 뇌문토기와 이중구연토기가 출토되는 쌍학리 유물을 주목할 수 있다. 이러한 토기는 하요하 유역의 편보문화에서는 쌍학리 유적에서와 마찬가지로 공반되고 있다. 그런데 요동남부에서는 편보문화, 쌍학리 유적에서와 유사한 이중구연토기가 출토되는 삼당촌 유적이 있는데, 신암리 청등읍, 쌍학리 유적과 같은 뇌문토기는 출토되지 않았다(그림 2-1~9).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쌍학리 유적을 침선의 이중구연토기와 뇌문토기로 나누어 쌍학리1기·쌍학리2기(古澤義久 2007) 로 보기보다는 쌍학리 유적을 분리하지 않고 청등읍기 이전 단계로 두는 것이 현재까지는 올바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기존에 신암리 I기로 보았던(後藤直 1971) 신암리 제4지점1문화층의 토기는 뇌문, 삼각문 등이 특징인 것으로 알려졌지만(강중광 1979), 도면상으로는 침선이 시문된 이중구연토기도 특징으로 생각된다. 이 토기의 특징을 신암리3지점1문화층과 유사하다는 견해도 있지만(裴眞晟 2007), 신암리3지점1문화층에는 무문토기, 고배 등이 나오고 있고, 용대문 토기도 무문화 된 것 점등을 보아서 이 문화층 보다 이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특징은 요동반도 남단의 소주산상층기 이전의 三堂村 1기, 쌍학리 유적의 유물과 유사한 점(그림 5-1~11) 등을 들어서 청등읍기 이전단계, 쌍학리 유적과 같은 단계로 보고자 한다(표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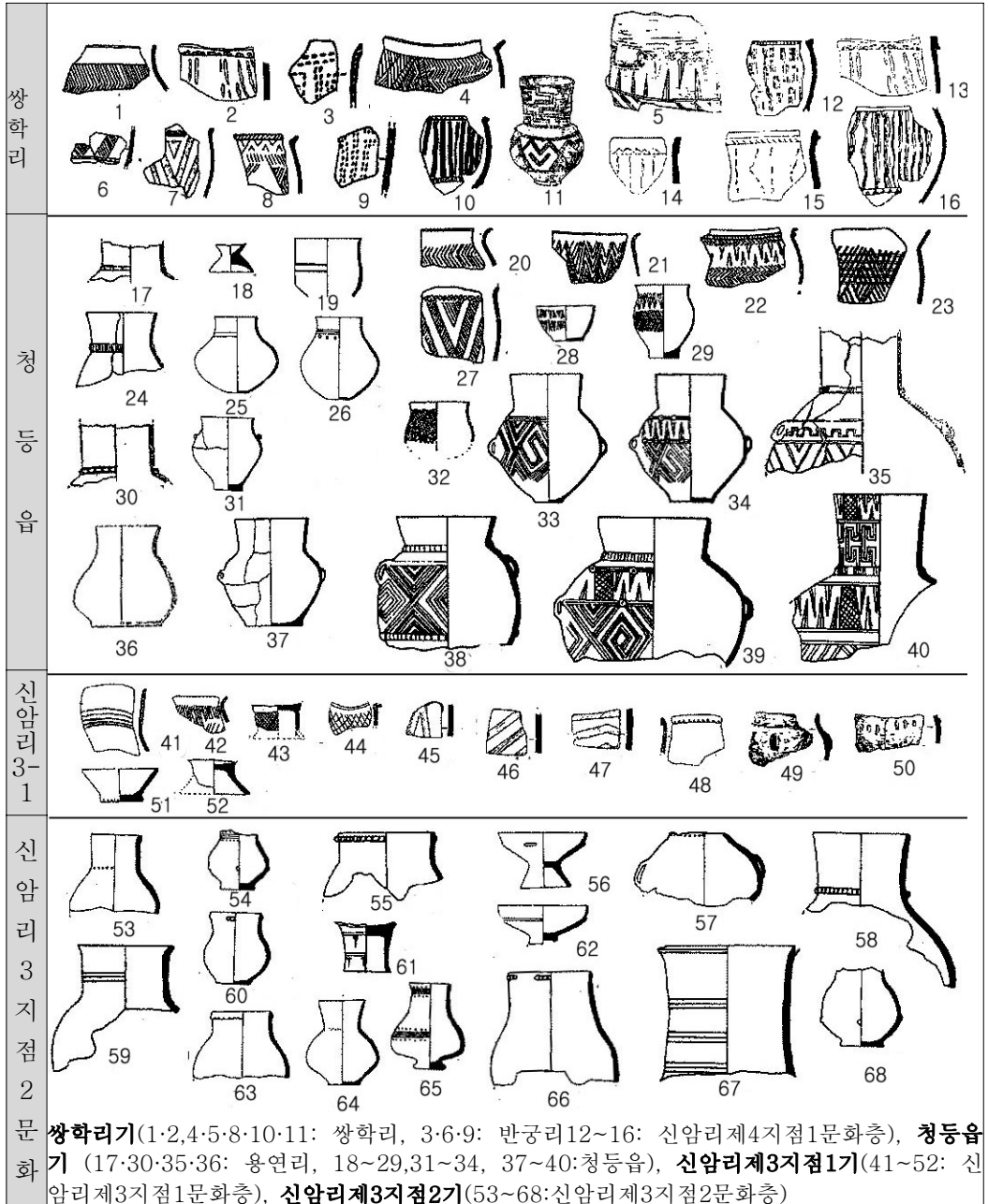


그림 5. 압록강하류역의 신석기시대 후기~초기 청동기시대 토기

2) 압록강중상류역

이 지역은 비교적 유적의 조사가 빈약한 곳으로 한반도 내에서 신석기시대

유적은 토성리 유적 한 곳 뿐이다. 그러나 압록강의 지류인 혼강의 오녀산성 신석기시대 문화층은 토기 특징으로 보아서(그림 6-11~22) 압록강중상류역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토성리 유적에서 출토되는 오녀산성 48호 주거지의 침선 발형토기(그림 6-21)와 경부에 돌대가 부착된 호형토기는 청동기시대 심귀리 유적(그림 6-32·33)의 것과 연결시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권을 혼강 유역까지 넓혀 볼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신석기시대 후기의 압록강하류 토기는 호형의 뇌문토기와 이중구연토기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압록강중상류지역에는 뇌문토기와 이중구연토기가 중심이 되지 않고 침선문토기가 주를 이루는 점이 압록강하류지역의 유적과 차이가 있다**.

토성리 유적에서는 침선문토기, 뇌문토기, 점열문토기(그림 6-8) 등이 확인되는데(그림 6-1~10) 특히 이 점열문토기는 오녀산성 48호 주거지(그림 6-11~17)에서도 확인된다. 이외에 오녀산성 48호 주거지의 유물 중 목이 긴 호형토기는 경부에 돌대가 부착되어 있고, 뇌문이 새겨져 있다(그림 6-22). 토성리 유적에서는 호형토기가 없는데, 오녀산성 48호 주거지와 후속하는 청동기시대 심귀리 1호 주거지에서 무문의 호형토기가 출토되는 점으로 보아서 오녀산성 48호 주거지는 토성리 유적보다는 늦은 단계로 생각된다. 또한 이 주거지의 뇌문호형토기가 중요한 이유는 압록강하류의 신암리 청등읍기의 뇌문호형토기와 비교가능하기 때문이다. 오녀산성의 호형뇌문토기는 뇌문의 시문범위, 동체부 형태 등에서 청등읍기의 호형뇌문토기와는 형식상에서 차이가 있지만, 압록강하류와 중상류의 자료를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기도 하다.

청등읍기, 소주산상층등에서는 이미 무문토기가 나타나고 있지만 오녀산성 48호 주거지에서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이 주거지는 청등읍기와 일정정도 병행하지만, 청등읍기에 비해서 그 존속기간은 길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표 2).

이 지역의 最古 청동기시대인 심귀리 1호 주거지의 토기는 전부 무문이다. 용형의 이중구연토기와 파수부 호형토기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 단계에서 무문토기가 전혀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보이는 점은 주변지역과는 차이가 있는데 이 지역의 고고자료가 부족한 점과도 연관이

** 이러한 유물조합은 동북한의 자이사노프카 문화의 것과 유사한데, 필자는 서북한의 뇌문토기가 동북한으로 퍼지는 경로로 토성리 유적을 지적하였고(김재운 2007) 이 지역 문화의 추이양상 및 역학관계가 본고의 다른 지역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따로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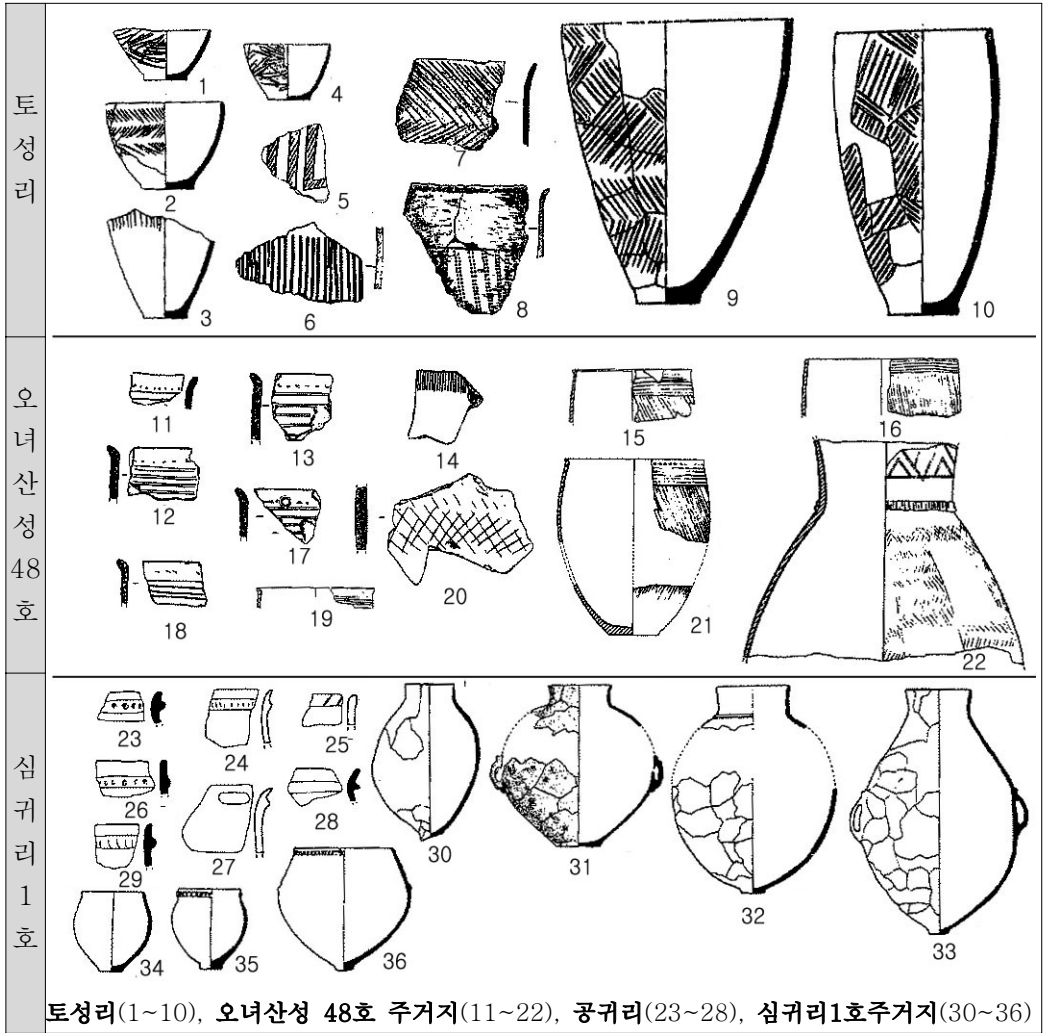


그림 6. 압록강중상류의 신석기시대 후기~청동기시대 토기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오녀산성 48호 주거지와 심귀리 1호 주거지 간에는 현재의 자료로는 어느 정도 공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앞으로의 자료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주변지역과의 병행관계에서 심귀리 1호 주거지는 신암리 3지점2문화층, 마성자 1기와 비교해 볼 수 있다. 신암리3지점2문화층의 자료가 주로 무문의 경부가 긴 호형토기, 고배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 중에서 이중구연토기가 보이는 점 등은 이 지역과 병행관계를 추론해 볼 수 있다.

	요동남단	요동북부	요하중하류	압록강하류	압록강상류
신석기시대	삼당촌1	石佛山期(고)	마성자하층3	쌍학리, 신암리 제4지점 1문화층	토성리
	소주산상층		마성자하층4	청등읍	오녀산48호
청동기시대	쌍타자1기	石佛山期(중)	마성자 1기	신암리 제3지점1문화층	
	쌍타자2기		마성자 2기	신암리 제3지점2문화층	심귀리1호

표 2. 각 지역의 병행관계

III. 요동과 압록강 유역의 병행관계 및 형성과정

관련된 지역의 신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로 형성과정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편년과 병행관계를 먼저 살펴본 후, 각 지역 간의 네트워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1. 병행관계

요동지역과 한반도 북서부지방의 편년은 이미 여러 학자에 의해서 정리되었다. 요동반도의 편년은 산동의 膠東반도 토기가 요동반도의 소주산 중층~쌍타자 제 문화에서 출토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고 있다(郭大順·張城德 2008). 이들 자료는 대문구-용산-악석문화의 편년은 무덤 일괄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 간에 흐름을 바꾸는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병행관계는 각 지역 문화 간의 공통되는 혹은 유사한 유물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그 중 신석기 후기에 공통적으로 보이는 뇌문토기와 이중구연토기이다. 물론 요동남부에서도 이중구연토기는 확인되지만, 뇌문토기는 문양의 구성이나 형태에서 차이가 있다***.

침선이나 문양이 시문된 신석기 후기 이중구연토기는 관련지역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며 요동과 압록강하류까지 공통적으로 보이는 유물이다. 지역의 범위를 요서지역까지 넓힌다면 서요하 유역의 동고태산유형에서도 확인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기는 관련지역의 신석기후기 병행관계를 밝힐

*** 요동반도 남단에서는 유일하게 광가촌 유적에서만 출토되었다. 이 뇌문토기(그림 2-20)는 요동지방의 다른 지역 토기와는 문양의 구성 등에서 차이가 있지만, 침선문으로 기하학적 문양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뇌문토기의 범주에 넣었다(김제윤 2007). 하지만 이러한 토기는 요동북부나 요하중하류역, 압록강유역의 양상과는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요동남부에는 뇌문토기가 신석기후기의 대표성을 띄지는 못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필자의 전고에서 한반도 동북지방의 뇌문토기 기원은 서북지방 중에서도 한반도 서북지방에서도 압록강하류와 단동지방(요동북부)이라고 밝힌바 있다(김제윤 2007).

수 있는 유물이고, 삼당촌1기-마성자하층3기-쌍학리가 병행관계를 이룰 수 있다(표2).

		침선문	뇌문(호)	점열문	이중구연발		이중구연호	호(동체부에서 경부가 심하게 격이는 것)		호(동체부에서 경부가 부드럽게 올라가는 것)		종교상 파수부호	삼족기	고배	배	삼환족기	파수부잔	침선문절연관	채색토기
					침선	무문		돌대문	돌대	파수									
요동남단	삼당촌				●								●	●					
	소주산상층		●		●								●	●		●		●	
	쌍타자1						●				●			●			●		●
요하중	쌍타자 2기						●	●					●	●					
	마성자하층2	●								●									
	마성자하층3				●					●									
	마성자하층4									●									
요동북부(단동지구)	마성자 1기								●	●									
	마성자 2기								●						●				
	염타자기	●																	
압록강하류	석불산기		●					●				●				●			
	석불산기(중)					●	●						●						
	쌍학리, 신암리 제4지점		●		●														
	청등읍		●					●				●		●					
	신암리 제3지점		●			●								●	●				
압록강상류	1분화층																		
	신암리 제3지점			●		●	●							●					
	2분화층													●					
	토성리	●	●																
압록강상류	오녀산48호	●	●	●															
	심귀리1호					●				●		●							

표 3. 관련된 유적의 토기기형

요동북부와 압록강중상류지역에는 문양이 시문된 이중구연토기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아서 요동북부의 이 단계는 다른 지역과는 병행관계를 이루지 않는 공백이 남아 있다. 하지만 토성리 유적에서는 이중구연토기는 없지만, 뇌문토기가 있어서 石佛山 古期-쌍학리 유적과 병행관계를 이룰 수 있다(표2).

그런데 쌍학리와 토성리 유적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침선문의 비율이 높은 점으로 보아서 삼당촌1기, 마성자하층3기보다는 존속시간이 더 오래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다음 단계는 요동남부에서는 소주산상층기이다. 사실 소주산상층-쌍타자1문화-쌍타자2문화로 이어지는 편년안은 그 동안 한반도 압록강하류와 병행관계를 맺는 초점이 되었다.

그러나 표3과 같이 요동남부의 소주산 상층, 쌍타자 문화와 압록강 하류, 압록강중상류의 유적과의 비교해 보면 이 지역은 다른 지역과 토기구성에서 차이가 있다.

소주산상층을 제외하면, 호형으로 경부에 돌대문이 부착되는 토기, 호형뇌문 토기 등은 석불산古期-청등읍기-마성자하층4기-오녀산성48호주거지 등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특히, 뇌문토기는 요하중하류, 압록강하류, 압록강중상류지역에서 신석기시대 끝까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단계의 토기는 신석기시대적인 요소로써 이전 단계부터 확인되는 뇌문토기의 영향이 남아 있다. 하지만, 호형토기의 경부에 부착되는 돌대문과 동체부에 부착되는 파수는 새로운 요소로 파악된다.

한편 소주산상층에서 무문의 호형토기가 출토되는 점은 다른 지역의 청동기시대와 공통적이다. 그러나 이미 무문의 이중구연토기가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리의 형태가 고리모양인 토기(三環足器), 뚜껑 토기 등 산동반도의 영향이 다. 뒤 이은 쌍타자 1기의 파수가 달린 컵형토기, 채색토기 등도 이 지역의 영향이 계속된 것으로 보고 있다(修偉華 1989, 郭大順·長盛德 2008). 그래서 소주산상층의 하한, 쌍타자 1기는 교동반도의 편년에서 楊家園 2·3기를 참고해 볼 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청동기시대가 일찍 시작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청동기시대가 되면 각 지역의 병행관계를 알 수 있는 토기는 그 이전 시기에 비해서 기종이 다양해진다. 특히 호가 다양해지는데, 무문의 돌대문이 부착된 것과 경부가 동체부에서 완만하게 외반되며, 간략하게 침선이 시문 호가 있고, 그 외 무문의 고배도 나타난다.

신암리3지점1문화층의 유물은 고배와 잔발형토기를 제외하고는 기형을 알 수 있는 유물이 정확하지 않다. 하지만 청등읍기와 신암리3지점2문화층 토기 기형으로 미루어 보아 호형토기가 주류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침선이 시문된 호와 고배는 청등읍(그림 5-26, 18)기에서부터 신암리3지점2문화층(그림 5-24, 56·62)까지 나오고 있으므로, 쌍타자1기와 청등읍기의 일부가 병행하고 있으며, 신암리3지점1문화층까지 병행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경부에 돌대가 시문된 토기는 신암리3지점1문화층, 마성자 1기(그림 4-14), 석불산中期(그림 3-33) 등에서 확인된다. 따라서 마성자 1기-석불산中期-신암리3지점1문화층과 병행된다.

한편, 심귀리1호는 이 토기와 함께 무문의 세로로 부착된 파수호(그림 6-31·33)가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아직 이 단계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청동기시대 첫 단계에 비해서 늦다. 이러한 공백은 토성리 이전단계도 아직 유적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서 유적조사가 많이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2. 지역 간의 네트워크

필자가 살펴본 병행관계는 이제까지의 연구 성과와 비교해서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그런데 지역 별로 유물을 살펴본 결과, 요동지역 내에서도 지역 간의 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점은 각 지역의 청동기시대 형성과정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1) 요동남부

요동남부에서는 소주산상층기부터 삼족기가 확인되는데, 이는 산동반도의 영향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속하는 오가촌기나 삼당촌 유적에서 삼족기가 확인되지 않다가 다시 소주산상층문화의 三環足器, 鏤孔豆, 三足盆形鼎등이 확인되는데 이는 산동문화의 영향이며, 이런 영향은 쌍타자 문화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요동의 다른 지역과는 토기구성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그림 5, 표3).

이 지역의 편년안은 압록강하류역과 비교되어 왔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자료이지만, 실제적으로 공통적인 점이 적다(그림 5, 표3). 이러한 요동남부의 성격에 대해서는 뇌문토기로 한반도 동북지방과 서북지방의 편년검토에서 이미 지적한 바 있다(김재운 2007). 즉 압록강하류(신암리유적, 쌍학리유적)에서 보이는 뇌문토기는 요동북부-압록강하류의 서쪽인 석불산유형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요동반도 남단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시각을 뇌문토기를 벗어나서 다른 토기조합으로 살펴볼 때도 비슷한 양상으로 요하중하류역 및 요동북부와 요동남부는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신석기후기의 외부적인 영향(산동반도)의 영향이 아주 컸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요동남단의 압인문 토기 등도 이 시기의 산동반도에 보이는 것으로 보아서 두 반도는 해상교류가 활발했다(修偉華 1989).

이러한 점으로 본다면 요동남단의 소주산상층문화와 쌍타자문화는 요동과 산동반도의 편년안을 마련하는 자료로는 중요하지만, 요동지방 전체와 한반도북서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기 힘들다.

2) 요동북부와 압록강하류

요동북부는 압록강 유역을 경계로 좌안에 위치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석기 후기부터 청동기시대 까지 비슷한 토기 조합을 보이고 있다. 석불산古期와 신암리 청등읍기는 뇌문토기가 중심이 된다는 점과 석불산古期-석불산中期-

석불산新期로 이어지는 토기의 발전방향(그림 3)이 청동읍기-신암리제3지점1 문화층-신암리제3지점2문화층의 그것과 유사하다(그림 5). 즉 신석기시대 후기는 뇌문토기가 중심이 되지만 청동기시대가 되면서 무문의 호형돌대문토기, 이중구연토기, 고배 등이 등장하고 있는 점 등이다.

하지만, 석불산古期에서는 三環足器가 나타나는 것은 압록강의 오른쪽 지역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동아시아 삼족기의 범위에 관해서는 이미 언급된 바(大貫靜夫 1998)가 있고, 이러한 점은 필자가 요동과 한반도의 차이점으로 보기도 하였다(김재윤 2004).

또한 같은 반도내이지만 요동북부와 요동남부가 토기조합으로 보았을 때, 차이가 크다(표3). 비록 삼족기라는 요소가 석불산古期에도 보이지만 그 뒤로 이어지는 토기발전단계에서 호형토기가 주가 되는 기본적인 틀을 깨지는 못한다. 반면에 요동남부의 산동반도 영향은 쌍타자1기-쌍타자2기로 가면서 주요 기종 구성이 호형토기와 더불어 고배, 파수가 달린 컵형토기, 채색토기 등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은 양 지역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요동북부와 압록강하류 간에는 삼족기라는 차이점도 있지만, 이의 영향이 압록강 이동으로는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빼고는 양 지역은 유사한 발전방향을 보인다.

이러한 점은 요동남단의 고고문화가 요동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점을 傍證하고, 오히려 산동반도와 교류하고 있다는 연구와도 연결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요동북부는 요동남부에서 어느 정도 영향은 받았지만 기본적으로는 압록강하류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3) 요하중하류역(태자하)와 압록강중상류~압록강하류

요하중하류역의 신석기시대 마성자하층3기, 마성자하층4기에서 청동기시대 마성자1기로 변화하는 점진적이다. 신석기시대 유문의 이중구연토기는 청동기시대로 가면서 무문화 되거나 간략화 되는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요동반도 남단이 산동반도의 영향을 받아서 다른 기종의 토기들이 나타나는 데 반해서, 이 지역은 재지적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 생각된다.

마성자1기에는 구연부가 이중(그림 4-16)이거나 구연부와 동체부에 돌대문이 부착된 호형의 토기(그림 4-16·17·18·22·23)가 주를 이룬다. 이러한 기형은 압록강중상류에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지만****, 압록강하류의 신암리 청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단계가 공백이 아니라 현재까지 유적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등읍기에는 나타난다(그림 5-38·24·30).

마성자2기는 문양이 있는 호형 돌대문토기는 완전히 없어지고, 호형토기로 구연부가 외반하고, 동체부가 상하로 길어지며 파수가 세로로 부착되는 것이 새로이 나타난다(그림 4-24). 이러한 토기는 압록강중상류의 공귀리, 심귀리 1호 주거지(그림6-31·33), 신암리3지점2문화층(그림5-57)에서 확인되고 있다. 특히 기형이나, 종교상 파수가 붙었다는 점에서 청등읍기의 뇌문토기(그림 5-33~39), 석불산古期の 호형토기(그림 3-10) 등에서 계보를 구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토기의 동체부 형태와 저부의 모양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압록강중하류의 호형토기와는 시간상의 변화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의 자료로는 이러한 종교상파수가 부착된 호형토기의 기원은 압록강하류가 되지만, 마성자하층4기에 이러한 유물이 확인된다면, 반드시 그러하다고는 알 수 없다. 다만 이러한 호형토기는 요동반도 남단에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도 요하중하류역(태자하중심)과 압록강하류~압록강중상류로 이어지는 네트워크는 요동반도 남단과의 관계보다는 더욱 긴밀하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은 신석기 후기부터 청동기시대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3. 청동기시대 형성과정

요동은 한반도 청동기시대 무문토기 기원지의 한곳으로 주목받은 곳이다. 그렇다면 이 지역의 새로운 시대는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이곳의 청동기시대 개시동인은 앞서 살핀 대로 인접한 지역과 영향 혹은 교류이다.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걸쳐서 물질문화를 변화하게 하게 되었고, 실제로 고고학 유적이나 유물에서 언제, 무엇부터를 새시대로 파악할 수 있을까?

이러한 명제는 신석기시대 후기(말기), 신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로의 전환기, 청동기시대 조기의 개념을 정립해 보는 것에서도 답을 구해 볼 수 있다.

한반도 동북지방은 신석기시대 후기가 자이사노프카 문화, 서포항상층문화, 금곡-홍성문화인데, 이 문화를 분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문화를 분리해서 말기를 설정하는 것은 힘들다. 신석기시대적인 양상이 퇴화하고, 다른 새로운 요소들이 보이는 단계가 일정한 기간 동안 변화가 보이기 때문에 이 기간은 곧 전환기이며, 조기로 볼 수 있다(김재윤 2010). 즉, 점이적인 발전단계(강인욱 2008)를 보이는 지역은 전환기와 조기를 동일(천선행 2007)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한반도 남부지방은 신석기후기와 말기는 구분되어 있

다. 또한 남부지방에서 신석기시대 요소가 잔존하기는 하지만 이는 산발적이고, 일정한 기간을 두기 힘들다. 청동기시대는 토기 뿐 만 아니라 주거지, 석기 등의 조합을 통틀어서 완전히 변화되었을 때 진정한 청동기시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래서 물질자료의 변환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이전까지 전환기로서의 조기를 설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조기가 전환기의 양상을 포함하지만 전환기가 조기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남부지방 조기의 개념을 정리하였다(천선행 2007). 한반도 남부에서 청동기시대 무문토기는 신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로 급격하게 변화하는데 조합되는 물질문화의 변화의 증거가 완전하지 않은 단계를 ‘조기’로 설정해서 전기와 구별하고자 하는 논지가 강하다.

이러한 조기개념에 대부분 동의하지만, 요동이나 한반도 북부에도 이러한 조기를 대입시킬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한반도 남부지방의 조기 표지토기인 각목돌대문토기의 기원지에 순수단계가 없다면, 조기 설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김장석 2008)도 한반도 청동기시대 형성과정을 밝히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요하중하류역의 마성자하층4기→마성자 1기, 압록강하류의 청등읍→신암리3지점1문화층기, 요동북부의 석불산古期→석불산中期의 토기변화는 신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로 급격하다고 보기 어렵고 점이적인 변화가 보인다. 이들 지역은 먼 지역에서 영향을 받기 보다는 가까운 지점에서 서로 관계가 있었다. 신암리3지점2문화층에서 청동칼이 출토되는 점을 보아서 물질변화가 이루어진 진정한 의미의 청동기시대라고 할 수 있다면, 그 이전의 신암리3지점1문화층과 그와 병행하는 단계는 전환기의 양상을 띄고 있는 조기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자료가 한정되어 있으며 절대연대가 측정되지 않은 점 등은 사실상 조기 설정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한편, 요동남부의 쌍타자 1기는 소주산상층문화에서 기종 구성의 변화, 문양의 변화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급격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요동남부의 청동기시대 특징이다. 이 지역 조기 설정은 여타 요동지역과는 다른데, 이 문제는 쌍타자 1기문화가 토기를 제외한 주거지나 석기 등 다른 생업과 관련된 문제와도 연구되어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논지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요동 및 압록강유역의 청동기시대 절대연대는 각 지역의 신석기후기 및 청동기시대의 연대 [소주산하층4900~3990B.P., 쌍타자1기(2275~1680B.C), 석불산古期(4650±100~4210±100B.P.)] 등이 알려져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 이를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조기설정문제와 관련해서 좀 더 자료가 축적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IV. 맺음말

요동지방의 신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로의 형성과정은 각 지역에 따라서 영향을 주고 받은 곳이 차이가 있고, 그로 인한 각 단계의 변화가 토기를 중심으로 확인된다. 요동남부는 소주산중층부터 계속해서 산동반도와 관계가 있어 왔지만 소주산상층기가 되면서 토기 기종구성에 많은 변화가 생긴다. 이러한 영향력은 쌍타자 1기로 변환하는 계기가 되면서, 요동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청동기시대가 되는 동인이다(표3). 이러한 요동남부의 특징은 요동 내의 다른 지역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그림 2).

요하중하류역과 요동북부~압록강하류~압록강중상류에서는 뇌문토기와 이중구연토기 혹은 호형의 돌대문토기라는 공통적인 신석기후기 특징을 보인다. 요동남부와는 달리, 이 지역은 청동기시대가 되면 신석기후기의 토기와 전혀 다른 이질적인 기형이 출현하는 현상은 없고, 토기가 무문화 되면서 발전된 형태로 변화한다. 또한 영향을 받은 지역도 요하중하류역과 압록강하류~압록강중상류가 밀접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가까운 지점의 재지적인 요소가 서로 받아들여져 발전하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요동지방 내에서도 요동남부와 그 외의 지역은 앞서 살핀대로 신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로의 형성과정에 차이가 있다. 요동남부는 급격하게 신석기토기에서 무문토기로의 변화가 나타나지만, 요하중하류역, 압록강하류~중상류는 점진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다.

요동의 요하중하류역은 한반도 북부 중에서도 압록강하류~중상류까지 영향을 미친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압록강중상류의 유적 혹은 어떤 기간이 한반도 남부에 급격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인지는 또 하나의 기원지인 동북지방과의 비교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국문

- 강인옥 2007, 「두만강 유역 청동기문화의 변천과정에 대하여」, 『韓國考古學報』 62
- 강인옥 2009, 「동북아시아 청동기시대 속의 북한」 『동북아시아적 관점에서 본 북한의 청동기시대』
- 강중광 1979 「신암리유적제4지점에 대하여」 『역사과학』 1979-2
- 고민정 2009 「남강유역 각목돌대문토기문화와 북한지역과의 병행관계」 『동북아시아적 관점에서 본 북한의 청동기시대』, 제2회한국청동기학회 학사분과 발표회
- 郭大順·張星德(김정열 譯) 2008 『동북문화와 유연문명 상』 동북아역사재단
- 김영근 2004 「요동지방신석기시대유적들의 연대」 『조선고고연구』 2004-4
- 김용간·이순진 1966 「1965년도 신암리유적발굴보고」 『고고민속』 1966-3
- 김용간·석광준 1984 『남경유적에 관한 연구』
- 金英熙 2002 『遼東半島新石器文化的 形成過程研究』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 김장석 2008 「무문토기시대 초기설정론 재고」 『한국고고학보』 69
- 김재운 2004 「韓半島刻目突帶文土器의 編年과 系譜」 『한국상고사학보』 46
- 김재운 2007 「한반도 동북지역 너문토기의 변천과정」 『文化財』 40호
- 김종혁 1991 「석불산유적의 유물 갖추세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1-4
- 김종혁 1992 「압록강하류역일대신석기시대유적들의 연대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2-4
- 김종혁 1993 「압록강하류역일대의 신석기시대질그릇갖추세 변천」 『조선고고연구』 1993-4
- 이병선 1963 「압록강유역빗살무늬그릇유적의 특성에 관한 약간의 고찰」 『고고민속』 1963-1
- 이병선 1965 「압록강유역빗살무늬그릇유적의 계승성에 대한 약간의 고찰」 『고고민속』 1965-2
- 裴眞晨 2007 『無文土器文化的 成立과 階層社會』
- 사회과학고고학연구소·역사연구소 1969 「기원전천년기전반기의 고조선문화」 『고고민속 논문집』 1
- 서국태 1986 『조선의 신석기시대』
- 정찬영 1961 「자강도시중군심귀리원시유적발굴중간보고」 『문화유산』 1961-2
- 정찬영 1983a 「I. 심귀리유적」 『압록강·독로강유역고구려유적발굴보고』
- 정찬영 1983b 「IV. 토성리유적」 『압록강·독로강유역고구려유적발굴보고』
-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88 『조선유적유물도감1원시편』
- 조중공동발굴대 1966 『중국동북지방의 유적발굴보고』
- 中村大介 2009 「중국 북장지역과 한반도의 청동기시대 병행관계」 『동북아시아적 관점에서 본 북한의 청동기시대』 제2회한국청동기학회 학사분과 발표회
- 千羨幸 2005 「韓半島突帶文土器의 形成과 展開」 『韓國考古學報』 57
- 千羨幸 2007 「無文土器의 早期設定과 時期的 範圍」 『韓國青銅器學報』 창간호
- 천선행 2010 「고대산문화의 시공간 검토」 『嶺南考古學』 52

Hua Yu Bing 2009 「요동지역 청동기시대 고고학문화연구」 『中國考古學 II』, 울산문화재연구원 제14회초청강연회

중문

岡村秀田 1992, 「遼東半島与山東半島史前文化的交流」 『環渤海考古國際學術討論會論文集』

大連市文物考古研究所 2000 『大嘴子 青銅器時代1987年發掘報告』

東亞考古學會 1942 『羊頭窪』

佟偉華 1989 「遼東半島与遼東半島原始文化的交流」 『考古學文化論集』 1989-2

陳光 1989 「羊頭窪類型研究」 『考古學文化論集』 2

陳全家·陳國慶 1992 「三堂新石器時代遺址分期及相關問題」 『考古』 1992-3

朱永剛 1993 「遼東地區新石器時代含条形堆文陶器有存研究」 『青果集』

李恭篤 1992 「本溪地區同穴文化遺存的發現与研究」 『北方文物』 1992-2

李恭篤·劉興林·齊俊 1985 「遼寧本溪廟後山同穴墓地發掘簡報」 『考古』 1985-6

李恭篤 1985 「遼寧東部地區青銅文化初探」 『考古』 1985-6

李步青·王錫平 1988 「膠東半島新石器文化初論」 『考古』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本溪市博物館 1994 『馬城子-太子河上流洞穴遺存』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04, 『五女山城 1996~1999,2003年桓仁五女山城調查發掘報告』

趙輝 1995 「遼東地區小珠山下·中層文化的再檢討」 『考古与文物』 1995-5

孫祖初 1991 「論小珠山中層文化的分期及与各地比較」 『遼海文物學刊』 1991-1

徐建華 1994 「大連地區新石器時代文化和青銅時代文化斷代區分」 『遼海文物學刊』 1994-1

許明網 1959 「旅大市的三处新石器時代遺地」 『考古』 1959-11

許明網 1961 「旅大市長海縣新石器時代貝丘遺地調查」 『考古』 1961-12

許明網 1987 「時論大連地區新石器和青銅文化」 『中國考古學會六次年會論文集』

許玉林·許明網·高美璆 1982 「旅大地區新石器時代文化和青銅器時代文化概述」 『東北考古与歷史』 1982-1

許玉林 1989 「東北地區新石器文化概述」 『遼海文物學刊』 1989-1

許玉林 1990 「遼寧東溝縣石佛山新石器時代晚期遺地發掘簡報」 『考古』 1990-8

일문

古澤義久 2007 「遼東地域の韓半島西北部先史土器の編年と地域性」 『東京大學考古學研究室研究紀要』 21

宮本一夫 1985 「中國東北地方先史土器編年と地域性」 『史林』 68-2

宮本一夫 1990 「海峽を挟む二つの地域」 『考古學研究』 37-2

小川靜夫 1982 「極東先史土器の一考察」 『東京大學文學部考古學研究室研究紀要』 1

大貫靜夫 1998 『東北アジアの考古學』

千葉其次 1996 「遼東青銅器時代開始期」 『東北アジアの考古學第二 [槿域]』